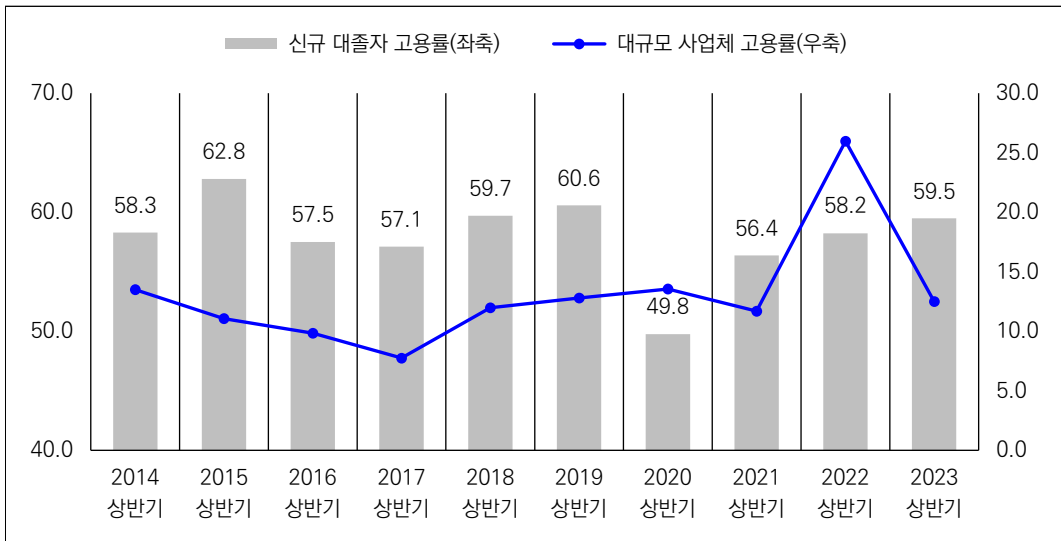


신규 대졸자 전공 계열별 고용률 및 유지취업률 현황

- 기업의 대규모 공채가 점차 줄어들면서 대졸 신규 채용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음.
 -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'매출 500대 기업 대상 2023년 하반기 대기업 신규채용 계획 조사' 결과를 살펴보면, 대기업 중 과반이 넘는 64.6%가 하반기 신규채용이 없거나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변함.
 - 이 비중은 작년 조사의 수치와 비슷한데,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기업이 48.0%,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한 기업이 16.6%에 달함.
 -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들 중 작년보다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이 17.8%, 작년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이 24.4%로, 채용 규모 축소 의사를 보인 기업이 더 많았음.
 - 채용 규모 축소의 이유로 경영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긴축경영(25.3%), 고금리·고환율로 인한 경기 악화(19.0%), 원자재·인건비 증가 등에 대비한 비용 절감(15.2%) 등을 들고 있어, 향후 경기에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채용 규모가 다시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.
 - 더욱이 작년 신규 입사자 중 이미 경력을 지닌 이른바 '중고신입'의 비중이 평균 21.9%로 나타나면서, 신규 대졸자는 채용 규모 축소, 경력직 선호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.
- 이에 본고에서는 신규 대졸자의 채용시장에서의 부침이 대표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함. 신규 대졸자의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고, 전공별로 그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지 알아봄. 또한 이미 취업한 청년들이 빠르게 직장을 이탈하는 것은 아닌지 건강보험 가입이력을 바탕으로 하는 취업통계연보 현황도 함께 살펴봄.
- 신규 대졸자 전체 고용률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크게 줄어들었다가 점차 회복되는 국면임.
 - 조사시점 당해 졸업자만을 신규 대졸자로 정의하면,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고용률 통계 등락폭이 상당히 크게 관찰됨.

-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으로서의 이행기간이 평균 11~12개월 정도로 관찰됨을 감안해서 조사 시점 한 해 전 졸업자와 당해 졸업자를 포함한 인원을 신규 대졸자로 정의했을 때, 이들의 고용률은 2019년 상반기까지 60% 내외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. 2020년 상반기에 크게 줄어들었다가 그 이후 점차 회복됨.
-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인 2019년 상반기 신규 대졸자 고용률은 60.6%를 기록했으나,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2020년 상반기에는 49.8%로 크게 줄어듦.
- 이후 고용률이 증가세를 보이면서, 2023년 상반기 신규 대졸자 고용률이 59.5%를 기록하여 코로나 이전 시기의 수치를 어느 정도 회복함.
- 대규모 사업체 취업자만을 추계하여 고용률을 계산해 보면, 2017년 상반기 이후 신규 대졸자 중 대규모 사업체 취업자 비중이 완만히 증가 중임.
- 2022년 상반기 대규모 사업체 고용률은 26.0%로 크게 증가했다가 2023년 상반기 12.5%로 과거 추세 정도로 줄어듦. 즉, 대기업 신규 공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, 신규 대졸자 대규모 사업체 고용 비중은 완만히 증가 중임.
- 종합하면, 신규 대졸자 고용률 변화나 신규 대졸자 중 대규모 사업체 고용 비중 변화를 살펴봤을 때, 코로나19 유행기를 제외하면 대표통계 상에서 특별히 채용시장에서의 어려움이 명확히 관찰되고 있지는 않음.

[그림 1] 20대 후반(25~29세) 신규 대졸자(전년+당해년 졸업자) 고용률(좌축) 및 대규모 사업체 고용률(우축) 추이 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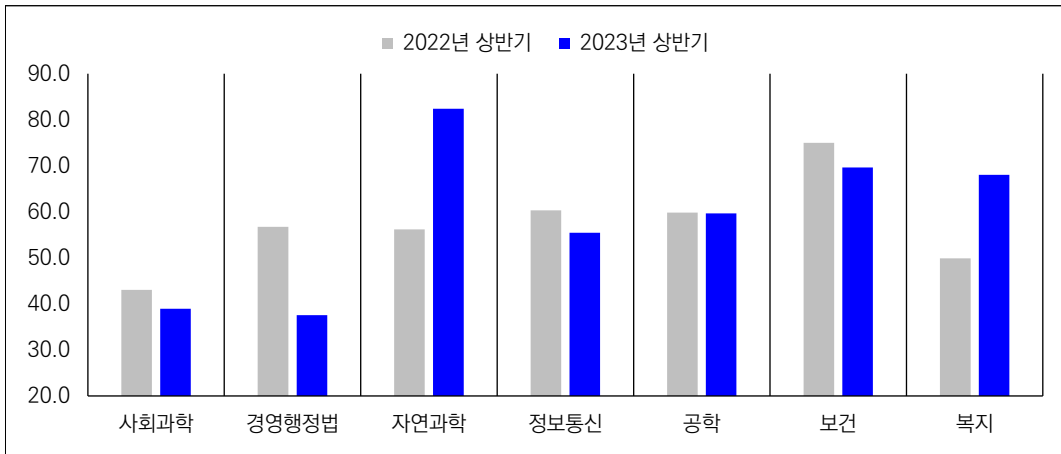
주: 1) 당해년 졸업자는 조사연도에 졸업한 사람, 전년 졸업자는 조사연도 한 해 전에 졸업한 사람을 의미함.
 2) 대규모 사업체 고용률은 사업체 규모가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체 취업자만으로 고용률을 계산한 결과임.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연도.

○ 신규 대졸자 고용률 수준 및 2022년 대비 변화는 전공 계열별로 상이하게 나타남.

-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19년부터 기존 6개의 전공 계열 구분에서 12개의 전공 계열 구분으로 좀 더 세분화된 전공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.
- 주요 전공별 신규 대졸자 고용률을 보았을 때, 주로 이공계열(자연과학, 정보통신, 공학) 및 보건복지계열을 전공한 신규 대졸자 고용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, 상대적으로 사회과학, 경영·행정·법학 전공자의 고용률은 낮았음.
- 표본 부족으로 특이치가 발생한 자연과학계열을 제외하면, 보건(69.7%), 복지(68.0%), 공학(59.7%), 정보통신(55.5%) 순으로 2023년 상반기 신규 대졸자 고용률이 높았음.
- 보건계열은 의약계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, 복지계열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졸업 후 취업이 용이한 것이 반영된 결과라 해석할 수 있음. 공학 및 정보통신 전공 역시 IT기반 일자리 증대의 영향이 신규 대졸자 채용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음.
- 한편, 사회과학(38.9%), 경영·행정·법(37.6%) 전공 신규 대졸자 고용률은 위에 언급한 계열들에 비해 고용률 절대 수준이 낮음은 물론, 전년대비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전공별 고용률 상대비교로 판단했을 때, 신규 대졸자 채용시장의 어려움은 주로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에게서 더 뚜렷이 관찰됨을 알 수 있음.

[그림 2] 20대 후반(25~29세) 신규 대졸자(전년+당해년) 전공 계열별 고용률 현황

(단위 : %)



주 : 1) 당해년 졸업자는 조사연도에 졸업한 사람, 전년 졸업자는 조사연도 한 해 전에 졸업한 사람을 의미함.

2) 자연과학계열 2023년 상반기의 20대 후반 신규 대졸자(전년+당해년) 고용률 수준은 표본이 상대적으로 적어 특이치가 발생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.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연도.

- 대학 졸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한 취업통계연보 기준으로도 인문사회계열 전공 대졸자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남.
 - 2021년 12월 31일(최신) 현재 신규 대졸자 전체 취업률¹⁾은 64.1%임.
 -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공 계열별 신규 대졸자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의약(83.1%), 공학(66.4%) 계열 취업률이 전체 취업률 수준을 상회하고, 사회(62.0%), 인문(57.3%) 계열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.
 - 취업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2022년 3월에서 11월까지 보험 가입자격 유지를 기준으로 유지취업률을 계산해 보면, 조사기준일 이후 1년간 유지취업률(4차 유지취업률)은 80.3%로 나타남.
 - 전공별로는 공학(86.1%), 의약(83.5%) 계열 1년 유지취업률이 평균보다 높았고, 사회(79.5%), 인문(74.4%) 계열 수치가 평균보다 낮았음.
 - 이러한 양상은 관찰 가능한 가장 과거 통계인 2016년 취업통계연보 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화가 없었음. 그 당시에도 졸업 후 취업률과 1년간 유지취업률은 의약계열(각각 83.2%, 78.3%), 공학계열(71.3%, 82.9%)이 매우 높았고, 인문계열(각각 57.7%, 69.0%), 사회계열(62.4%, 72.9%)이 낮은 수준이었음.

〈표 1〉 대졸자 계열별 취업률과 취업 후 1년간 유지 취업률 현황

(단위 : %)

| | 취업률 | 유지 취업률 | | | |
|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| | 1차 (3월) | 2차 (6월) | 3차 (9월) | 4차 (11월) |
| 전 체 | 64.1 | 91.0 | 86.8 | 81.8 | 80.3 |
| 인문계열 | 57.3 | 87.9 | 82.5 | 76.2 | 74.4 |
| 사회계열 | 62.0 | 90.8 | 86.4 | 81.3 | 79.5 |
| 교육계열 | 49.8 | 86.6 | 84.2 | 80.5 | 79.8 |
| 공학계열 | 66.4 | 93.9 | 90.8 | 87.3 | 86.1 |
| 자연계열 | 61.0 | 89.7 | 85.3 | 79.9 | 78.3 |
| 의약계열 | 83.1 | 93.8 | 89.7 | 85.2 | 83.5 |
| 예체능계열 | 65.2 | 84.8 | 78.1 | 69.9 | 67.6 |

주 : 1) 취업률 = $\frac{\text{취업자}}{\text{졸업자} - (\text{진학자} + \text{입대자} + \text{취업불가능자} + \text{외국인유학생} + \text{제외인정자})} * 100$

2) 여기서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해외취업자, 농림어업종사자, 개인창업활동종사자, 1인 창업자, 프리랜서를 포함함.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한 취업자의 정의와 상이함에 유의.

3) 유지취업률은 조사기준일(12월 31일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일정기간(3, 6, 9, 11개월)이 경과한 시점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유지되고 있는 자의 비중.

자료 : 한국교육개발원(2022), 「202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」.

1) 취업통계연보의 취업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정의하는 고용률의 개념과 상이하므로, 본고에서의 취업률과 고용률의 정의와 절대 수치에 다소간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.

○ 종합하면, 신규 채용 규모 축소, 경력직 선호라는 두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신규 대졸자의 노동시장 상황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에서 분명히 관찰되지는 않았음. 신규 대졸자 고용률이 코로나19 유행기에 감소한 이후 회복국면이었고, 대규모 사업체 고용 비중도 완만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. 반면, 전공별로는 그 양상이 달리 나타났는데, 주로 이공계열 신규 대졸자 고용률이 높았고, 인문사회계열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음. 이러한 양상은 신규 대졸자 전수를 대상으로 한 취업통계연보에서도 그대로 관찰되었으며, 인문사회계열 신규 대졸자는 취업률 절대 수준이 낮고 취업상태가 1년간 유지되는 비중도 다른 전공에 비해 낮았음. 즉, 신규 채용시장의 어려움은 신규 대졸자들 중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, 이 같은 상태가 다소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집단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. **KLI**

(김종욱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